

베토벤 창의력의 원천 와인, 난청 위로해준 친구 역할도

손관승 인문여행작가

형클어진 머리의 이미지가 강렬하기 하지만, 베토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세 가지 엄격한 루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손으로 일일이 세어 원두 60알로 커피를 끓여 잠자던 창조 정신을 깨우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숲속 산책이다. 베토벤이 음악가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국제도시 빈에 도착한 것은 1792년, 22살 때였다. 지금은 전성기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작아졌지만, 당시의 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과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이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거주하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베토벤은 빈에서만 79차례나 이사했을 정도로 과묵한 습관이 있었지만, 산책은 그에게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주었다. 비너발트(Wiener Wald)라 부르는 숲속 산책을 특히 좋아해서 한때 빈 시내와 교외에 동시에 집을 임대해 살았을 정도였다. 그린칭, 하일리겐슈타트, 칼렌베르크, 운터도블링 같은 지역에서 베토벤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이유다. 베토벤 전기를 쓴 에드먼드 모리스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방랑하던 그의 움직임(movement)이 작곡의 악장(movements)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 강조했을 정도다.

세 번째 루틴은 와인 마시기. 그의 할아버지는 음악인이면서 동시에 성공한 와인 상인으로 그의 피에는 포도주가 흐르고 있었다. 라인강변의 본과 도나우(다뉴브)강변의 빈, 두 곳 모두 로마제국과 게르만 민족이 만나던 접경일뿐더러 와인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빈에서는 행사 때마다 포도주가 빠지는 법은 없어서 연회나 무도회, 콘서트, 귀족의 저택에서 벌어진 실내 연주회를 막론하고 와인이 흘러 넘쳤다. 빈에서 첫 후원자였던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저택에서 금요일마다 와인을 곁들인 실내 음악회가 열렸는데, 베토벤은 빈의 유력 인사들에게 뛰어난 피아노 연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참석자 가운데는 하이든이 포함되어 있었고 젊은 베토벤은 그에게 대위법 같은 작곡 기법을 배우게 된다.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궁정 악장으로 40년 동안 활약하며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 하이든은 봉급을 와인으로 받기도 했고, 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와인 셀러를 갖고 있을 만큼 열렬한 와인 애호가였다. 에스테르하지 가문은 17세기부터 400년 동안 와인의 명가로 유명한데, 특히 1758년 파울 안톤 에스테르하지 2세의 부인이 결혼할 때 프랑스 부르그뉴 지방에서 와인 전문가를 대동해 피노누아 품종의 포



1 라인가우 지방의 명품인 와이너리 요하니스베르크. 2 하겐작 베토벤 흉상. 3 빈의 호이리겐, 그해 생산된 햇와인을 파는 선술집. <사진 위키미디어>

원두 60알로 커피 끓여마시고 산책 포도주 즐기다 악상 떠오르면 메모 와인 애호가 하이든에게 작곡 배워 청력 저하·외로운 삶 와인으로 달래 죽음 그림자 닦쳐 못먹자 “안타깝다”



도 목욕을 가져와 빈의 와이너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하이든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계의 3B라 표현되는 바하, 베토벤, 브람스가 하나같이 와인을 사랑했던 것을 보면 와인은 작곡가의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인 걸까? 베토벤은 점차 다양한 후원자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보르도, 부르그뉴, 샴페인 등 프랑스 와인뿐 아니라 헝가리의 달콤한 토카이 와인도 접하게 된다. 오케스트라와 연습을 끝내고 나

면 단원들에게 와인 잔을 돌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다. 빈의 교외에는 포도나무 언덕과 악사들의 연주가 흐르고 돈가스의 원조인 비너슈니첼을 파는 호이리겐(Heurigen)이라는 유서 깊은 선술집들이 있다. 호이리겐은 보졸레누보처럼 그해 생산된 햇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토벤 체류 당시 주민 100명당 한 곳의 호이리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베토벤도 포도밭 주변의 언덕을 산책하다가 호이리겐

에 들러 와인을 마시다가 악상이 떠오르면 휴대한 노트에 황급히 적곤 했다. 악보를 적는 노트와 스케치북의 양이 점차 늘어나 이사를 때마다 자료 보관소를 이전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한 메모광이었다.

와인은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베토벤에게 따뜻한 친구였다. 명성의 이면에는 갈수록 나빠지는 청력과 이명 증세에 시달렸다. 죽음의 공포감까지 겹치자 불과 서른살의 나이에 비밀리에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써두는데,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한다. 그때 위안을 준 것도 와인 한 잔이었다. “(와인을 마시면) 나의 나쁜 청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1827년 3월 26일 사망하기 직전, 베토벤이 마인츠의 음악 출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향 와인에 대한 그의 열정을 읽을 수 있다. “라인란트 포도주 혹은 모젤 백포도주 몇 병만 보내주면 좋겠어요.” 1806년산 퀴데스하이머 베르크 포도주 한 상자가 마침내 도착했다. 독일 라인가우 지방의 포도로 만들고 황금색을 띤 해묵은 와인이었다. 하지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 입에 닿 수 없었던 베토벤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던가. “안타깝다, 안타깝워. 너무 늦었어.”

베토벤이 평소 자주 썼던 말 중에 ‘아우프게크노프트(aufgeklopft)’라는 독일어가 있다. ‘단추를 풀다, 자유롭다’는 뜻으로 격식을 싫어하던 그의 성격을 나타낸다. 베토벤이 사망한 지 75년이 지나 빈에서는 전통과의 단절을 선언한 일군의 예술 운동이 일어나는데 분리파라 부른다. 분리파의 성지인 제체시온(Secession)은 예술과 건축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전시장 지하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라는 34미터 환상적인 대작이 3개의 벽에 그려져 있다. 클림트의 작품은 바그너의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음악을 벽화의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위대한 음악가에게 바치는 오마주였다. 왜 베토벤인가? 얼마든지 귀족의 후원 속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의 기호에 맞추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예술관에 충실하게 살았던 독립 정신에 대한 존경이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을 때면 교향곡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가 흘러나온다.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모젤이나 라인가우 지방의 리슬링, 혹은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그뤼너펠트리너(Gruener Veltliner) 백포도주로 건배해볼까.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손관승 MBC 베를린특파원과 iMBC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오서’, ‘괴테와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 등 여러 책을 썼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요양 중풍재활 수술후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화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062)720-2000